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October 10, 2019 Vol. 691

거룩한 소명, 축복의 길, "그대 이름은 사모!"

은혜한인교회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제26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

제26회 한미 연합 목회자 사모 세미나 열려

"사모세미나 기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속 아픔들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사모의 입장이라 마음속으로만 꾹꾹 눌러놓고 힘들었던 적도 많은데 속 시원하게 나누며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가지고 본 교회에 돌아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함으로 성도들과 교역자분들을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고 싶습니다."

목회자 사모신문(이사장 피종진 목사, 발행인 설동욱 목사)과 미주복음방송(이사장 한기홍 목사, 사장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한 '한미 연합 제26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쉼, 회복 그리고 사명의 길"이란 주제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사모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정삼숙 사모, 한기홍 목사, 피종진 목사, 설동욱 목사, 박태남 목사가 강사로 나서 사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모의 사명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으로 이끌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사모들은 "마음껏 웃고, 눈물 흘리는 가운데,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으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세미나는 한기홍 목사가 "행복한 사모가 됩시다", 정삼숙 사모가 "나는 사모입니다", 피종진 목사가 "사모와 청지기의 삶", 박태남 목사가 "장막 밖으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척 하기", 설동욱 목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모" 등의 제목으로 사모와 아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강의하며 사모들의 심신을 달래고 영적 재충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심형진과 함께하는 워십투게더

오는 12일(토) 부에나 팍 '더 소스' 3층 테라스 특설 무대

유명 가스펠 싱어송라이터 '심형진의 워십 투게더' 콘서트가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부에나팍 더 소스 몰에서 열린다.

8회째 열리는 워십 투게더 콘서트는 "세상 한 가운데서"라는 예배 컨셉으로 진행돼 왔으며, 회를 거듭할수록 참석자들이 늘어나 남가주 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 예배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

특별히 이번 콘서트는 팜 콜렉티브(Psalm collective), 원하트 미니스트리(Oneheart Ministry), 뉴송 미니스트리(NEWSONG ministries) 등 남가주 지역 예배팀들을 초청해 '예배 페스티벌'로 진행되며, 심형진 목사가 인도하는 워십투게더 밴드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워십 투게더를 준비하는 심형진 목사는 "문화와 인종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섬기고 하나님 중심의 문화와 회복을 노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찬양팀이 연합해 하나님을 높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심 목사는 또 "남가주 지역 성도들이 워십투게더 콘서트를 통해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배를 위해 삶을 드리는 헌신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수전도단에서 오랫동안 예배 사역을 감당하다, 현재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예배담당목사로 사역 중인 심형진 목사는 은혜로다, 아름다우신, 멈출 수 없네 등 수많은 주옥같은 찬양 곡들을 작사 작곡했으며, 캠퍼스 예배 사역에 헌신했었다.

김동욱 기자

번역/공증/파산
법무사 ~
■ 학교설립 / 인가 전문
– 연방정부 SEVIS 유학비자 신청
– 신학/경영대학, 사립초중고교, 홈스쿨링, 유치원
■ 교역자 누구나 신학사,석사,박사 과정 개설 가능
EG Global LDA Service
생활법률 속성해결사
T:(213)999-4379
info@wpaus .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홈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쉘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날마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넘버 : 122043958
어카운 넘버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213)364-7289, (213)605-1983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
M.A. in Worship Studies
•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예배의 패러다임 정립
•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전문화와 세속적인 문화에 맞선 깊은 영적 예배 추구
•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예배를 시도할 수 있는 예배 지도력과 컨텐츠 개발
• 글로벌 시대에 미래를 선도할 예배 모델 연구
특징
– 한국어로 개설되는 최초의 예배학 석사과정
– 48학점 (2년 과정)
– 캠퍼스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 사역자, 유학생 장학 혜택
강사진
Tommy Walker Greg Scheer Tom Kraeuter Edwin Willmington 가진수 목사 정종원 목사 김섭리 목사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10월 26일 (토) | 9AM–4PM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주최: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Global Worship Ministry)
주관: 베델교회 | 후원: 월드미션대학교
대상: 목회자, 교회 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 연주자, 예배자
등록: 선착순 150 | 등록비: $ 80 (강의안, 식사제공) | 문의: 714) 337–4532
문의: (213) 388–1000, admissions@wmu.edu | 웹사이트: www.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빚진 자의 마음으로 생명 바쳐 섬기겠다”

성화장로교회 임직예배 드려

성화장로교회 임직예배

성화장로교회(담임 이동진 목사)는 지난 6일, 장로·권사 임직식을 갖고 이효영 장로를 원로 장로로, 성일웅 씨를 장로로, 정정희, 오현숙, 윤조 엔씨를 권사로 각각 장립했다.

이동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임직 예배는 김덕균 목사의 기도에 이어 KAPC 남가주 노회장 최동진 목사(샌디에고반석장로교회)가 “귀히 쓰는 일꾼”(딤후2:20-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한 임직 서약과 선포에 이어 선배 권사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임직 받는 이들을 위해 꽃다발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동진 목사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은 보이지 않는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왔다”고 소개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지도자이자 그리스도의 용사로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화장로교회 교회 개척부터 본 교회와 함께하다 원로장로로 추대 받은 이효영 장로는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에 충성한다고 했지만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한 것 없는 빚진 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빚을 갚는 자세로 생명을 바쳐 주님과 교회를 섬기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임직 받은 성열웅 장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직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헌신하도록 하겠다”며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인사했다.

김동욱 기자

ANC 온누리교회 이현진 사모 ‘하나님의 사람들’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 열어

전시회 관람 후 기념 촬영하는 ANC 온누리교회 목회팀

오는 15일(화)까지 코리아타운 리앤리 갤러리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현진 사모의 미술 작품 40점을 소개하는 개인 전시회가 오는 15일(화)까지 코리아타운 리앤리 갤러리(3130 Wilshire Blvd #502., LA)에서 진행된다.

‘하나님의 사람들(People of God)’을 주제로 총 40 점의 작품이 소개되는 전시회는 ‘출애굽’, ‘새벽예배’, ‘홍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등 말씀 묵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기초로 완성됐다.

물감이나 붓을 사용해 마치 덧칠한 듯 그려진 그림들은 종이와 찰흙, 아크릴, 오일 등 다양한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믹스드 미디어’ 기법을 사용했다. 백지 캔버스에 깊이와 질감으로 입체감을 더해 작품의 영감을 한껏 살렸다.

이현진 사모는 “기독교적 아이디어로 현대적 작품을 그리고 싶었다”며 “끝없는 우주 가운데 티끌과도 같은 인간의 유한함을 표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을 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만 붙드는 전통이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 등을 작품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이현진 사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머니인 한국기독교미술가협회 고 박용순 화백이다.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한결같이 기독교 미술만 고집했던 어머니를 따라 이현진 사모도 기독교 미술 활성화를 위해 남가주 기독교미술가협회의 재건에 힘쓰고 있다.

ANC 온누리교회 이진형 목사의 아내인 이현진 사모는 한국에서 선화예중·예고를 졸업하고 UCLA에서 파인아트(fine art)를 전공했다. **전시회 문의 : 213) 305-1698**

김동욱 기자

[1면 “거룩한 소명, 축복의 길, 그대 이름은 사모!” 이어]

첫째 날 강의한 한기홍 목사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사모’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며 “어떤 목회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배로운 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돕는 배필의 사명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세미나를 통해 사모들은 ‘사모’, ‘어머니’, ‘아내’ 이전에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깨달았고, 남편을 돕는 배필이자 자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자각했다. 또 사모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특별히 한미 연합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한국 교회 사모와 미국 한인교회 사모들이 참석해 다양한 목회 환경에서 사모들의 삶과 목회를 함께 나누며 사모들의 지경을 넓이는 계기도 마련됐다.

설동욱 목사는 “목회자 사모들은 무조건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교회 안에 있지만, 사모들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매우 귀한 분들”이라며 “힘든 목회 현장에서 울고 싶어도 마음 편히 울지도 못하고, 웃고 싶어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는 사모님들이 세미나에 오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마음껏 쉼을 누리고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26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한기홍 목사

한편 이번 사모세미나는 한국 교회 사모들을 중심으로 미국 서부 중심도시를 관광하는 일정도 함께 진행된다. 세계 7대 아름다운 경관 중 하나인 그랜드캐년, 울창한 산림과 맑은 공기가 조화를 이루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와 UC버클리 대학을 투어 등 다양한 관광과 문화체험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미국 서부 중심 대도시를 관광하며 하나님이 미국 대륙에 주신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관광이 진행되는 일정 중에도 아침저녁으로 사모들과 함께 하는 예배의 시간, 기도와 회복의 시간을 진행하여 영과 육이 함께 은혜받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I-20 자격신청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얼바인 침례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부흥성회
강사: 박광철 목사 | 주제 : "회복" (롬 12:2)
얼바인 침례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부흥회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일을 행하시기 위해 지난 세월동안의 묵은때를 벗겨내고 손수 옥토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온전한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여러분 모두를 기쁨의 말씀 잔치에 초대합니다.
일시:
10/18 (금) 7:30PM "사랑을 회복하라" (계 2:1-7)
10/19 (토) 6:00AM "기도를 회복하라" (창 32:24-32)
10/19 (토) 7:30PM "관계를 회복하라" (창 45:4-8)
10/20 (일) 8:00AM & 11:00AM "믿음을 회복하라" (눅 22:54-62)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얼바인 침례교회
IRVINE BAPTIST CHURCH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949)857-9425 www.irvine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 한국어)
2부: 오전 11시 (찬양과 말씀의 감격이 있는 예배 / 한국어)
EM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 (청년들의 열정이 넘치는 예배 / 영어)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금), 오전 6시 (토)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수)
** Am1190 미주복음 방송 **
매주 월요일 아침 7시에
권태산 목사님 설교가 나갑니다.

‘가르쳐, 세례 주고, 파송하는 교회’

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은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창립 9주년 기념예배

산타모니카, 말리부 지역의 유일한 한인교회인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담임 김경렬 목사)는 지난 6일, 창립 9주년을 맞아 창립 감사 음악예배를 드렸다.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는 UCLA, 산타모니카 대학 등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또 지역 홈리스들을 위한 푸드뱅크 구제 사역에도 힘쓰며 산타모니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

김경렬 목사는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지나 온 사역을 돌아볼 때, 복음을 받아들인 한 영혼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며 “산타모니카 한인교회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제자로 세워 파송하는 사역을 묵묵히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교한 하상훈 목사(인천하나교회)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왕 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다”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면한 이준성 목사는 “산타모니카 한인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교회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닮아 왔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예배는 표세흥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이날 창립 감사 음악 예배에는 달라스 지역에서 활동하는 Kim Quartet의 특별 연주와 소프라노 김우영 사모가 특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 4남매로 구성된 챔버 앙상블 Kim Quartet는 프로 연주자다운 기량으로 환상의 하모니를 연주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목회자 가정에서 성장해 4남매가 모두 음악을 전공하고 프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Kim Quartet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적 재능으로 지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젊은 세대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자 한다”며 “연주회를 원하는 미 서부지역 교회는 이메일 helenhaeunkim@gmail.com 전화 682-266-3131로 문의해 달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연세대 동문합창단 남가주 연세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 성황리 개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진행된 남가주 연세콰이어 제14회 정기연주회

남가주 연세콰이어(단장 이상은, 지휘 이정욱)가 개최한 제14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5일, LA에 위치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신영각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연목회 회장 남상국 목사의 기도와 오현근 연세대학교 남가주 총 동문회장 인사말로 시작된 연주회는 비발디, 모차르트, 존 루터의 ‘글로리아’ 연주와 넬라판타지아, 신 아리랑 등 수준 높은 연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오직 주의 은혜로’ 같은 한국 복음성가와 흑인 영가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이날 연주회는 연세대 음대 1회 졸업생으로 한국 성악의 대가로 알려진 바리톤 최인달 교수가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아쉽게 출연하지 못했다. 그 자리는 아틀란타에서 활동하는 연세동문 성악가 테너 채혁이 ‘뱃노래’, ‘꽃노래’를 불러 연주회를 빛냈다.

이정욱 지휘자는 “매년 관객들과 연주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단원들의 호흡도 잘 맞아 즐겁게 연주할 수 있었다”며 “특별히 연세콰이어 단원인 안재숙 씨가 작곡한(오직 주의 은혜로) 곡을 연주해서 의미를 더 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기 연주회를 마친 남가주 연세콰이어는 오는 24일, 한국 연세동문 합창단의 초청으로 1200석 규모를 자랑하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 공연장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남가주 연세 콰이어는 존 루터의 글로리아 전곡을 노래하고, 민인기 교수가 이끄는 연세대 동문 합창단과 합동 무대로 진행된다. 또 포항 선린대 채플 찬양, 송정미와 함께 하는 포항시민회관 연주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연세대학교 동문과 배우자들로 구성된 남가주 연세콰이어는 2006년 1월 창단 이후 정기연주회, 장애인 불우이웃 돕기 자선 공연, 양로원 위문 공연과 커뮤니티 행사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세콰이어는 매주 1회(화, 오후 7시) 나성영락교회(1721 N. Broadway) 소망관에서 모임을 갖고 한인사회에 보다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으며, 연세대 동문이나 가족 및 연세 YGCEO가족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 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0

"제9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 를 마치고"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지난 주일(6일) 사우스베이 지역에 아름다운 축제가 있었다. 교회연합 찬양제가 토렌스 조은교회(김우준 목사)에서 10개 교회 11개 팀이 참여하여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를 드렸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였다. 결코 쉬운 연합행사가 아닌데 하나님 은혜로 교회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합하여 이번 찬양제도 500여 성도가 함께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이 찬양제를 비롯하여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행사를 처음으로 이끌었던 지역교회 선배 목사님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 특히 초기 때부터 교회연합에 힘을 쓰셨던 분들 중에 이번 개최지인 조은교회의 초대 담임이셨던 고 김바울 목사님이 많이 생각났다. 그분의 열정과 연합을 추구하며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번 찬양제를 준비하며 재삼 사우스베이 지역의 훌륭하셨던 선배 목사님들께 또한 현재 시무하고 계시는 귀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께 모두가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것에 한 해 동안 회장의 직분으로 섬기었던 필자는 감사뿐이다.

교회들마다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므로 정말 최선의 수고로 연습한 모습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웃 교회들의 찬양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경청하며 행복하게 응원하며 박수치며 격려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온 성도들과 같이 호흡하며 열정적인 찬양으로 이끌었던 찬양팀, 바디 워십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찬양을 군무로 표현하신 팀, 은혜로운 실내악 연주와 어우러져 합창의 극치를 보여주신 성가팀들, 한 팀 한 팀이 가히 최고의 찬양을 주님께 맘껏 정성껏 올리는 시간이었다.

특별한 순서가 있었다.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우정 출연했다. 그간 부부들이 시간을 내서 찬양연습을 꾸준히 해오던 팀이다. 교회들이 다르고 직분들이 다 다른 분들이 모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며 교회 연합찬양제에 어울리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연습을 가디나 대흥교회에서 화요일 7시에 모여한다. 부부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엔세나다 선교사님들이 연합팀을 이루어 찬양제에 우정출연했다. 16명이 2개월 여간 바쁜 사역 중에서 시간을 쪼개어 연습했는데 6분은 비자 문제 그리고 사역지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10분의 선교사들은 놀라울 정도의 수준급 찬양을 올려 드렸다. 그들의 찬양이 불려질 때 뒷면 대형 화면으로 그간 그들이 하였던 선교지 사역 모습들이 비쳤다. 참 은혜롭고 귀한 전문인 사역을 저마다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선교사들 찬양 후에 더 가슴 뭉클한 시간이 이어졌다.

곧바로 사우스베이 목사회 회원 목사님들이 대거 강단에 함께 올랐다. 참여한 모두가 선교사 연합회의 사역을 후원하고자 헌금시간을 가졌고 선교사들과 목사님들은 연합하여 헌신 찬양을 드렸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은 그 자리에 온 교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의미 있는 산제물이었다.

마지막 찬양은 토렌스 조은 교회 찬양팀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하기에 부족함 없는 찬양을 올려드렸고 뒤이어 전체 찬양팀 연합으로 강단에 올라 합창하였다.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제목의 찬양이었는데 부르는 연합 찬양팀들도 듣는 청중 성도들도 모두들 눈가에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고이는 감동의 곡이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엔세나다 선교사 한 분이 필자의 손을 잡으며 한 말을 남기셨다. "제 평생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연합 찬양제에 함께 한 감동이 천국 갈 때까지 남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3) 미소를 연습하라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간병인의 표정이 연로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간병인의 표정에서 "따뜻함과 관심, 이해심이 느껴질수록" 환자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의 몸짓과 표정에서 냉담이나 무관심이 느껴질 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미소란 무언가 즐겁고 활기찬 것을 찾아냈을 때, 우리가 얼굴에 짓는 동작입니다. 미소는 행복의 표현입니다. 또 미소는 반가움의 표현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가장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의 상태를 얼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정으로 얼굴에 쓰는 행복과 기쁨의 싸인(Sign)입니다.

논리적으로 미소는 입술의 26개의 근육을 통해서 지을 수 있는 신체적인 요소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소를 지을 때 얼굴 전체의 근육은 42개가 동원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화를 낼 때는 43개의 근육을, 놀랄 때는 62개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감정은 얼굴로 표현하기 위해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소가 분노보다 과정이 덜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아이들은 하루에 400회 정도 웃는 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소가 줄어 50대가 되면 하루에 15번~20번 정도만 웃습니다. 미소가 감소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미소가 줄어든 만큼 삶의 활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미소를 행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미소 지어도 심신에 유익합니다. 또 미소는 그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인간의 뇌는 좀 더 미소 짓는 사람을 더 신뢰하고 이런 미소 짓는 사람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친밀하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서 두 직원이 기다리고 있으면 고객들은 미소 짓는 판매원을 향해 다가가 말을 걸고 안내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미소가 상대방에게 평안함을 주고 미소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음을 알려 주는 대목입니다.

미소가 실력입니다. 아름다운 미소가 능력입니다. 인상이 좋다는 말은 아름답고 멋진 미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근사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까요? 더 자주 더 근사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몇 개의 칼럼들을 정리해서 미소 짓는 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미소를 거울 앞에서 연습하라. 미소가 아름다운 얼굴이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미소는 근육운동입니다. 미소 근육이 발달해야 완벽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사한 미소를 위해 연습해야 합니다. 미소를 짓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미소를 위한 미소 연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에너지는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둘째 이웃과 미소 짓기를 연습하라. 친밀한 사람이 미소 연습의 파트너가 되면 효과적입니다. 미소 연습 파트너로 가까운 친구가 좋습니다. 가족과 미소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형제나 자매끼리 미소를 연습해도 좋습니다. 부부끼리 미소를 연습하면 금술도 좋아지고 가정의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미소 연습을 잘하려면 미소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규칙이나 미소를 잘 짓는 사람에게 용돈을 주거나 상금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미소를 연습하려면 미소의 유익에 대하여 미리 나누면 좋습니다. 미소 연습을 위해서 미소의 효력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소로 소통하는 관계를 갖는 것은 행복한 관계의 지름길입니다. 가족이 더불어 미소 짓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가꾸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미소의 습관을 갖는 것은 성공과 행복을 위한 대로(大路)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한 생각으로 미소 지으라. 행복한 마음으로 미소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미소는 기쁨과 행복에서 출발합니다. 홀로 있을 때, 혼자서 운전할 때 행복한 과거의 순간들을 머릿속에 그리며 행복한 미소 짓기를 연습하면 효과적인 미소 연습이 됩니다.

행복한 지난날의 경험을 머리에 떠올리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행복도 느끼고 미소도 연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을 추억하는 것은 건강한 정서 개발에 아주 유익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맞이할 행복한 상황들을 상상하며 미소를 짓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행복한 일들을 상상하며 미소 지어가며 미래를 가꾸어 가는 것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투찌에 마을에 희망을!

세계 최빈국 아이티의 빈민촌 투찌에(Truitier) 마을!
쓰레기 마을에 형성된 투찌에 마을!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투찌에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팔찌를 판매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일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팔찌 판매 프로젝트입니다. 주민들의 노동비, 재료비, 탁송비 등을 제외한 판매 수익금 투찌에 학교 건립과 투찌에 주민 생활 개선에 사용 될 것입니다.
투찌에 학교건물은 주일에는 교회로, 야간에는 장년 교양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 팔찌 1개 $20
30개 이상 주문시
우편 등으로 배달됩니다.

- 문의: World Share USA
강태광 목사
(323) 578-7933

아이티 투찌에 마을 학교를 세웁니다!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투찌에 마을 학교 교실을 분양합니다 !
◎ 6개 교실 1개 강당(교회로 활용), 1개 주방
◎ 3,000불 지원으로 교실 1개를 마련합니다.
◎ 후원자(기관) 이름으로 교실을 건축합니다.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 대 표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다음 세대 위한 예배, 세속 문화 맞선 깊은 영적 예배 필요"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
2020년 봄학기 학생 모집

본사를 방문해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 과정을 설명하는 최윤정 교수(좌)와 예배학 석사 학과장 가진수 목사(우)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2020년 봄학기부터 예배학 석사과정(Master of Arts in Worship Studies)을 개설한다. 예배학 석사과정이 한국어로 개설되기는 처음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예배학 석사는 변화하는 현대 예배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전문화, 세속 문화에 맞선 깊이 있는 영적 예배 인도자로 예배 지도력을 세우게 된다. 또 시대에 맞는 예배 콘텐츠 개발과 미래를 선도할 예배 모델을 연구하는 과정이다.

예배학 석사과정을 교육할 강사진 또한 화려하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 대표 가진수 목사가 학과장을 맡았으며 세계적인 워십리더 타미 워커, 칼빈대학교에서 크리스천 워십을 강의하는 그렉 쉬어 교수, 브렘 워십센터 에드윈 윌밍턴 교수, 베델한인교회 예배 기획자 겸 음악감독 김섭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예배 찬양 주임 교수 정종원 목사 등 예배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 예배 사역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과 영성을 교육하게 된다.

예배학 석사과정은 성서 신학, 실천신학, 전공필수로 현대 예배학, 예배 인도학, 현대 예배 모델론, 예배 영성과 교회 예배 사역론, 예배 목회와 리더십, 예배 인도와 송라이팅, 예배 인도자 훈련, 아트 오브 워십, 예배와 음악, 예배 작곡 이론 및 보컬 등으로 이뤄졌다. 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총 48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타 학교로부터 전입 시 최대 2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월드미션대 최윤정 교수는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회복을 필요로 하지만 정작 실제적인 솔루션 없었다"며 "바른 예배 인도자를 양성해야 할 신학교의 사명을 가지고 예배학 석사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과장 가진수 목사는 "예배학 석사과정은 예배 신학을 비롯해 성경적 예배의 역사적 이해, 예배 사역자로서 영적 인격적 성숙, 예배 기획 및 예배 인도, 예배 사역자의 리더십, 예배 콘텐츠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등 오늘날 목회와 사역 현장에 필요한 예배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예배학 석사 과정은 2년 과정으로, 졸업 후 예배 기획자, 예배 인도자, 예배 강사, 예배 찬양 연주자 등의 자격을 갖추고, 교회와 기독교 세계의 다양한 예배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폭넓은 예배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배학 석사 과정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미국 거주 혹은 유학생들은 월드미션대학교 캠퍼스에서, 캘리포니아가 아닌 타주 거주 학생들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예배학 석사 과정 문의는 admissions@wmu.edu 또는 213-388-1000 으로 할 수 있다. 이하는 학과장 가진수 목사와 일문 일답.

-한국어로는 처음으로 예배학 석사 과정을 개설했다.

"그렇다. 예배학이 미국 신학교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의 신학교에서도 예배학의 필요성을 느껴왔지만 그동안 교육할 강사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어 개설이 지연됐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세계적인 워십리더 타미 워커를 비롯해 그렉 쉬어 교수, 에드윈 윌밍턴 교수, 베델한인교회 김섭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정종원 목사 등 훌륭한 예배학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다, 현대 예배 사역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지식과 영성을 교육하게 된다."

-예배 인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인도자를 예배 인도자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예배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만이 아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성찬이 예배의 4대 요소인데,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오늘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예배의 회복이 먼저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 복음과 성경적 바른 예배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워십 리더들을 길러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예배학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다. 모든 교회는 예배를 기초로 세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며, 소홀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파했으며, 모일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 뜨겁게 찬양했다. 그들은 절박했으며, 형식보다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다. 그들에게 예배는 생명보다 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었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가 교회의 일차적 목적이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삶의 예배로서의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함이 크다. 다시 말해 주일예배를 통해 세상에서의 남은 6일을 살아갈 동력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 강력한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세상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넘쳐야 하고, 그 어떤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예배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기대하는 예배인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지루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다음 세대인 젊은이들과 학생들에게 예배가 참아야 하는 인고의 시간일 뿐이라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한다. 영성이 고갈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기에 바른 예배학을 통한 예배의 회복이 절실하다."

-한국 교회 예배가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위기를 맞은 원인은 무엇인가? 교회가 흥미롭지 않고 심심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을 쫓다 보니 세상보다 모두 뒤떨어졌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은 영적인 기쁨이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영적으로 대면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찾아온다. 다음 세대가 이 영적인 기쁨,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교회의 영적 성장은 예배의 회복부터이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의 회복이 교회의 본질이자, 영적 능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편하고 쉬운 소비지향적인 예배,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 내가 중심 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가 지루해져 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수동적인 예배 구조와 순서에 있다.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다양한 요소들, 설교를 비롯해 찬양과 기도, 성찬 등을 예배 순서에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예배에 대한 고찰이 적다 보니 설교를 위한 예배, 즉 설교 지향적인 예배가 되어버렸다.

예배의 본질은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시대에 맞게 계속적으로 변해야 한다. 새로움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퇴보하는 것이다.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예배의 갱신과 변화를 통해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을 비추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배 드림을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 영적 능력을 회복해 세상 속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김동욱 기자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기독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1996년부터 24년간 미 전 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 / Year	$500 / Incident	$1,000 / Incident	$5,000 / 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기관입니다.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앙성장의 기대

히브리서 5:11-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신앙성장의 기대는 믿음이 자라는데 따르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뜻입니다. 목회를 하다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성장에 따르는 기대는 하나님 편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은 멜기세덱에 관한 설교를 하려다가 그만둬야겠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히브리서는 문맥상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는 중론입니다. 왜 히브리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를 하려다 그만둔 것은 그들이 간혹 알아들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을 생활신앙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겠다는 입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소개되는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중략)…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히7:1-3)"

멜기세덱은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4:17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훈련시켜온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다섯 개 연합군을 쳐부수고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 돌아오는 길에 사웨 골짜기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벗이라고까지 지칭이 되어왔는데 그에게는 그 시대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만이 하나님을 믿어온 것처럼 인식해 왔으나 한 가정의 양떼를 위하여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목자로 살렘 왕 멜기세덱을 같은 시대에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목자 자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양떼를 위해 존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떼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쓸모있게 쓰임받는 성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목회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지칭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영적지도를 위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보살피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연장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고 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하신 양떼를 위하여 참 목자를 세우시고 그 목자에게 의탁해서 그 양떼로 하여금 신령한 소망을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염려하시고 책임져주신다는 소망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웨 골짜기에서 만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상봉은 영적인 교제로 즉시 발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창14:9)"라고 자신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전쟁 승리로 얻어진 많은 전리품 중에서 서둘러 십분의 일을 가려내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한 율법이후에 선포된 십일조 제도보다 엄청난 역사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전술과 목숨을 내건 모험적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전리품인데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멜기세덱에게 십일조 바쳤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인연을 신앙적으로 잘 보살피고 지도하며 이끌어주며 뒤에서 기도로 염려해 준 멜기세덱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깨달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양지간의 인연의 원리는 영적인 지도를 통한 올바른 믿음으로 소망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고 기대거시고 사랑하셔서 이루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할 때 주어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사역에 선히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하여 설교를 시작했던 목자가 그 양떼들의 영적인 수준을 살펴보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중단한다면서 염려하는 여운의 말씀을 잘 상고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상태와 비교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12절은 교회에 다닌지는 오래되어 선생이 되었어야 마땅함에도 신앙의 초보적인 것을 다시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상태이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갓난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성으로 다니며 구원은 마치 얻어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조건을 좇느라고 바삐 살았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체험으로 확인하는 그 과정이 곧 믿음이 자라는 단계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체험없는 신앙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생각으로만 믿고 행동으로는 믿어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행동의 실천으로 얻어지는 성과를 체험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 살게 됩니다.

신앙성장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면 생각하기를 자신이 더욱 축복을 받고 교회에서의 명예와 지위를 받는 것으로 결부시키는 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 살기를 힘쓰는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기대로만 결부시키는 것은 그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회적 입장에서는 교회를 이끄는 목자의 사명에 일치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큰 몫으로 감당해 드리려는 모습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그 믿음이 자라나는 소망적인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목회에 있어서 그 목자의 손발 노릇을 잘하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200만명에 해당되는 목자로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천부장, 오백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워 이스라엘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봉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유익보다도 그들의 목숨도 기꺼이 내어 놓을 만큼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이름을 날리고 교권을 장악해서 행세하고 우쭐대고 대접받고자 함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여 하나님 말씀에 굴복해서 목자로 더불어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업에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몫에 헌신할 수 있는가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기준으로 결부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자에게도 손발 노릇을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계통질서를 잘 지켜 은혜분위기를 확장시켜 사랑의 띠를 더욱 두텁게 맬 수 있도록 자기 위치에서 자기 구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질 수 있겠습니다. 목자로 하여금 걱정과 염려를 하게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에 적지 않은 부덕을 끼친다고 하면 이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되어 마귀 앞잡이와 쓴 뿌리로써 교회 부흥의 장해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하여 제거하고 처리해야합니다. 교회가 권징이 없다면 교회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열려진 교회문은 수없이 많지만 자기가 진리와 성령으로 부셔지고 녹아져 회개하여 거듭나는 변화를 이루지 않고 죄악의 근성을 거짓의 탈을 쓰고 이교회 저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고 하여도 진정한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받을 가망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이로 인해 늘 홍역을 치루게 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 속에 직분을 받는 것으로, 명예나 이권에 대한 기대의식으로 결부시키는 타락한 양심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성도라고 하면 자신을 쳐서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는 지혜가 있을 때 신앙이 가장 올바르게 자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말과 행동은 옆에 있는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평신도들이 걱정하는 중직이 된다면 차라리 그 직분을 파직시켜 교회가 엉터리라는 잘못된 모습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기대거시고 소망가운데 관심을 기울여 오셔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이 확실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없고 소망적인 믿음으로 직분과 직책에 걸맞게 성실히 감당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장을 기대가운데 기뻐하시며 더 큰 그릇으로 붙들어 쓰실 때에 우리 입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무한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자라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4시30분/동부 오후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증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투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COLUMBUS DAY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 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 · 지방 · 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빈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공급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탈모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무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기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하지절단 또는 알츠하이머 질환 / 37% 미세혈관 합병증 / 21% 당뇨병 관련사망 / 14% 심장마비 / 12% 뇌졸중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선제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지원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리드 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지로제 성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383-3566

새일교회 창립 8주년 감사예배, 8명 직분자 세워

새일교회 창립 8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식

창립 8주년을 맞은 새일교회(담임 정병노 목사)는 지난 6일, 창립 감사 예배와 임직예배를 드리고 이현기, 장재광 장로, 박진희, 손영희, 장 그레이스, 이순영, 차미선, 최현숙 권사 등 8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정병노 목사는 "새일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세상의 소망이 되고, 지역 사회에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패러다임의 변화"(히브리서 4:15)란 제목으로 설교한 양종석 목사(대양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임직자들도 나의 생각과 의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감싸주는 성도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LA 임마누엘교회 최순길 목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돼라"라고 권면했다. 김동욱 기자

제9회 사우스베이 교회연합 찬양제 원 패밀리교회, 한인소망교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 나성금란교회,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남가주살롬교회 Ensenada Mission Choir, 사랑의부부합창단, 토랜스조은교회 등 10개의 교회가 참여하였다. 사진은 마지막 순서를 마치고 참가한 교회 성가대원들이 모두 강단에 올라 [믿음 안에서 하나]를 제창하고 있다.

GIFT 상담치유 연구원, 상담 치유 사역 KAMT 오리엔테이션

오는 12일(토)과 26일(토)

GIFT 상담치유 연구원은 상담과 치유사역 관심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일(토) 오전 8시 30분, 26일(토) 오전 10시에 상담 치유 사역 특수 훈련인 GIFT KAMT (King's Army Medics Training) 왕의 군대 위생병 훈련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왕의 군대 위생병 훈련 프로그램은 삶의 전쟁터에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증 또는 자녀문제나 가정의 위기 등으로 상처 받은 사람들을 돕는 과정으로, 전달훈 의학박사와 GIFT 전문 상담소와 상담치유 연구원 원장인 리디아 전 임상심리학 박사가 진행한다.

GIFT 상담치유 연구원은 오리엔테이션 참가자들에게는 KAMT 훈련생 등록 시 특별 혜택이 주어지며, 훈련과정 중 다양한 자격증도 얻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오리엔테이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전화 714-522-4438로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 www.giftheal.com
714-522-4438

LA 온누리교회 "무료 혈액 검사 받으세요"

10월 13일 무료 혈액 검진 개최

LA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정엽)는 오는 10월 13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본 교회(743 S. Grand View St. LA, CA 90057)에서 대규모 무료 혈액 검진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는 LA 온누리교회 유두고미니스트리가 10월에는 이민사회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무료 혈액 검진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행사를 위한 기금은 LA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마음을 모아 마련, 120명의 참석자들은 모두 무료로 혈액검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한다. 13일 예약 시간에 맞춰 교회를 방문하면 혈액 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당 수치를 비롯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다. 채혈 예약을 한 사람은 8시간 물을 포함해 모든 음식에 대해 금식해야 한다.

혈액 검사 결과는 26일 LA 온누리교회에서 열리는 건강세미나에서 전달받을 수 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수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쉽게 설명해주는 건강세미나를26일 오후 4시 개최한다.

LA 온누리교회 측은 "큰 병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민생활을 하다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다. 무료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참가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사 예약은 웹사이트(www.YuDoGo.com)에서 가능하다.

LA 온누리교회 유두고미니스트리는 앞으로도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다양한 세미나와 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은진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현장 기부와 경매로 약 20만 달러 모금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

제36회 기금 모금 행사, 한인사회 인사 및 기업인, 개인후원자 300여 명 참여 성황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지난 4일 개최한 제36 회 연례 기금 모금 행사에 약 3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 한인가정상담소의 지난 36년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기부금 후원과 라이브 옥션(Live Auction) 등을 통해 약 20 만 달러를 모금, 한인가정상담소를 위한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실감케 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36년간 한인사회의 관심과 후원 덕분에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고, 한인사회와 후원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한인 및 후원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올해 연례 기금 모금 행사는 타이틀 스폰서로 시너스 사이나이를 비롯해 제이미슨 서비스, AMKO 등이 후원했다.

크리스천 위클리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크리스천 위클리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후 단체사진

크리스천 위클리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가 지난 27일(금) 오전 11시 조명환 목사의 사회로 열렸다.

이날 송정명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7년간 크리스천 위클리를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린다. 새로운 장소에서 더욱 분발하여 기독언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케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한기형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은 설교에서 "그동안 크리스천 위클리가 흔들림 없이 교계를 위한 언론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 온 것은 발행인께서 언론인으로서의 정도를 잘 걸어오셨고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이민목회 현장을 두루 경험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새 둥지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기독언론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대 목사(찬양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그레이스미션대학 산상기도캠프 개최

갈보리 수양관에서 진행된 그레이스미션대학 산상 기도 캠프

그레이스미션대학(총장 최규남 박사 이하 GMU)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1박 2일) Yucaipa에 위치한 갈보리 수양관에서 산상 기도 캠프를 가졌다.

기도 캠프는 저녁 기도회와 아침 말씀, 교수님과의 톡, 기도, 나눔, 캠프 파이어,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참석 학생들과 교수들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GMU는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과 보내심에 참여하고자 하는 참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현재 GMU의 학위과정은 신학 학사, 기독교상담학 학사, 목회학 석사, 기독교교육학 석사, 교차 문학 석사, 기독교상담학 석사, 선교학 박사, 교차 문학 철학 박사 등 8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 admissions@gm.edu로 할 수 있다.

홈페이지: www.gm.edu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차세대예배 오전 9:30)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 (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 찬양시작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EM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중보기도(목) 오후 1:00
금요찬양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아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 예배 오전 10:30
2부 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산타모니카 만리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박효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갓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정동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 예배 오전 8:00 **장주영**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우영화** 목사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안 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조준민** 담임목사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 : 周二 晚上 七点半。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00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최승목** 담임목사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명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MP채플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후 1:00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민종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CMF 선교회 선교사 10월 정기예배

CMF 선교회 선교사 10월 정기예배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은 지난 5일 CMF 선교회관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10월 정기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김영호 선교사의 기도에 이어 하대식 선교사가 "아랍의 회복과 요르단 선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하 선교사는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선교사의 모범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며 선교를 온 삶으로 보이셨던 분"이라며 "그리스도를 따라,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각 선교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요르단에서는 90% 이상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는 역시 이슬람 종교"라며 기도를 요청했다.

이어서 정환 선교사(태국)와 방익수 목사, 샘 유 전도자가 간증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가주 한인 목사회 임원회 열려

남가주 한인 목사회(회장 김관진 목사)는 지난 3일 임원회를 갖고, 후반기 사업과 11월 중순 갖게 될 총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진 목사 기도로 시작된 임원회에서 공천위원 선출 및 총회 일정을 논의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 목사회는 수석 부회장으로 이정현 목사(크리스천비젼신문 대표)를 선출해 다음 회기를 준비 하고 있다.

ILP 한국 교회 목회자 50여 명 미국 방문 남가주기쁨의교회는(담임 이황영 목사)는 지난 4일, 한국 ILP(I Love Pastor 한국 대표 손종원 목사, 미국 대표 정권 장로) 50여 명을 초청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ILP 목회자들은 간증과 설교로 회복의 은혜,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임재 등을 나눴다.

시니어센터 2019 가을 의료 축제 열려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2019 가을 의료축제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정문섭, 이하 시니어센터)는 시다스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Cedars-Sinai Medical Center)와 LA시 노인국 등 3 개 기관이 함께한 한인타운 커뮤니티 대상으로 2019 가을 의료축제가 지난 1일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의료 행사는 총 155명이 참석했으며, 양주동 박사의 간암 예방 특강, 혈압 검사, 치과검사, 독감 예방접종, 콜레스테롤 검사 및 의료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간 검사를 위한 특수 차량이 지원돼 많은 관심을 모았고 검진 결과를 양주동 박사가 직접 설명해줬다.

시다스 사이나이 병원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인타운 지역 의료 봉사활동을 펼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면서 "오늘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진료 과목을 늘려 진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문섭 이사장은 "여덟 번째 시니어센터 행사인데 준비도 잘됐고, 짜임새 있는 진행과 팀웍이 좋았다"면서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적극 참여한 시니어들과 LA시 노인국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치매 · 중풍 예방 탁월한 효과
'햄프플러스' 2+1 이벤트

특별 출시 기념, 오는 10월 30일까지 진행

햄프플러스 런칭 기념 특별 세일
CBD 함유 신경계 조직 발달 촉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치매와 중풍에 탁월한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햄프 플러스(HEMP PLUS)'가 출시 기념으로 2병을 사면 1병을 추가로 증정하는 2+1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2017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햄프 플러스의 주요 성분인 CBD는 중풍과 알츠하이머 증세를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는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설명하며 CBD 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뇌전증, 암 등 많은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햄프 플러스는 커큐민(CURCUMIN) 및 함초를 추가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고, 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IN) 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와준다.

'햄프 플러스(HEMP PLUS)'는 특별히 출시 기념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2+1 이벤트를 통해 2병을 사면 1병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혈관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 신경정신질환, 면역력 증강, 혈관청소, 암 전이 예방에 탁월한 효과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인 햄프 함초환 역시 2+1이벤트를 통해 2병 구입 시 1병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기간 250달러인 햄프 함초환을 190달러(모든 가격은 택스 별도)에 할인 판매한다.

햄프 함초환은 LA 한인타운 윌셔 오피스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www.hempbiousa.com)에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 3020 Wilshire Blvd #100, LA
▶문의: (213) 386-3896, (213) 605-2772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성경적성윤리연구소 만드는 게 꿈"

"'내슈빌 선언' 뛰어넘는 '서울 선언' 선포되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가 "성경적 성윤리연구소를 만드는 게 꿈"이라며 "여기에는 동성애 문제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동성애가 왜 비성경적인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의 성윤리가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지"를 연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6일 주일예배 설교에서 "원래 동성애연구소를 만들어야겠다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 이미 자료가 다 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좋은 대안을 주셨다"며 이 '성경적성윤리연구소'에 대해 말했다.

이 목사는 "이건 장기적 목표다. 가볍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며 "당장 하고 싶은 건 두 가지"라고 했다. △동성애 관련 홈페이지와 △아이들 연령에 맞는 책을 만들겠다는 것.

그러면서 미국에서 지난 2017년 나온 '내슈빌 선언'을 언급했다. 이는 당시 남침례회 스티브 게인즈 총회장,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 회장, 남침례회 신학대학교 알버트 몰러 총장, 존 파이퍼 목사 등 미국 복음주의 목회자 및 신학자 153명이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등 성경적 성윤리를 총 14개 조항으로 나눠 선언한 것이다.

이 목사는 "지난 두세 달 동안 '이걸 어떻게 한국교회에 소개하고 접목할까' 고민했다.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 오늘(6일) 아침 내슈빌 선언을 올려드렸다. 그 이유는 성경적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내슈빌 선언을 뛰어넘어 서울 선언이 선포되는 그 날을 지금 꿈꾸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목사는 두 가지 예화를 소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학교에서 신생아의 성별을 그 신체를 보고 병원이 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학생들이 토론한 내용 △우리나라 청소년 행사의 포스터 제목에 대한 것이다.

이찬수 목사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한 목회자를 만나 전자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는 이 목사는 "학생 18명 중에 17명이, '성별은 병원이 아닌 18세 이후 본인이 결정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에 찬성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이미 그 지역 학교들은 서류에 '엄마'(mother) '아빠'(father) 대신 '부모(parent)1' '부모2'로 적게한 지가 꽤 오래 되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선진국 미국에서 너무나 진지하고 자연스레 통용된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었다"고 했다.

후자의 예화에 대해서는 "최근 어느 여전도사님이 우리나라 청소년 행사의 포스터 하나를 보내주었는데, 제목이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였다"며 "부제는 '자신의 욕망과 감각을 인식할 수 있는 대안적 성교육'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본능대로 즐기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아닌가? 세상 문화가 무얼 부추기나? 왜 예수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이상 잘 설명하는 게 있겠나?"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 너무나 혼란스러운 미국 발 유럽 발, 너무나 타락한 가치관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M 예배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본당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이명이 담임목사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 ubmchurch.com

민승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이 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거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왕상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 : 45 목요저녁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0 셀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 CA92886
T.(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지난 3일에 이어 한글날인 9일 다시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 일대에 운집했다. ⓒ김진영 기자

다시 대규모 광화문 집회 "밀알 되어 이 나라 살리자"

3일 이어 9일에도 기독교인 등 수많은 국민 운집

지난 3일에 이어 9일 다시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이날 역시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광장 일대를 가득 메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이날도 전광훈 목사가 사회를 본 가운데 예배를 먼저 드렸다. 특히 전 목사는 "오늘 우리는 역사의 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날 집회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또 전국에서 온 많은 목회자들이 단상에 올라 기독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이 그 동안 누려운 자유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자고 외쳤다.

이용규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강화해 세계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한다"며 "공산·사회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병균처럼 이 나라를 망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삭발식으로 눈길을 끌었던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는 "건강할 때는 그것이 소중한지 몰랐다가 건강을 잃고 나면 어리석게도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이 지난 2년여 동안 큰 아픔을 겪고 나서야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우리 모두는 다시 깨닫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야 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목사인데 왜 머리를 깎았냐'고 질문한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한다.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대한민국이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기에 목사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온 국민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삭발을 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는 걸 보면서도 '아니오'라 외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목사가 이 머리카락을 깎았다. 생명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에서 그렇게 했다. 한 알의 말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달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자"고 외쳤다.

최근 예장 통합총회가 제104회 총회를 개최했던 곳인 포항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도 단에 올랐다. 박 목사는 "우리는 여기에 진보와 보수의 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좌와 우의 싸움도 아니다. 상식과 몰상식, 진짜와 가짜의 싸움을 위해 모인 것"이라며 "상식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진짜가 무너지면 가짜가 이 나라를 끌고 가게 된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 경천애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잃었기에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이라며 "저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부끄럽다. 다른 이들을 욕하기 전에 나 자신과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하자.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장경동 목사(대전중문교회)는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성을 발하면 그것을 들어주셔야 한다. 목사도 교인 한 명이 울 때 그를 달랜다. 하물며 이토록 수많은 이들이 울고 있으면 와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달래주는 게 지도자"라고 했다.

장 목사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외치는 것일 뿐"이라며 "옳고 그름만 중요한 게 아니다. 성숙한 사랑이 더 중요하다.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이 나라와 국민, 지도자를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 마음 속에 그런 성숙함 있어서 듣고만 있지 말고, 여기 나와 우리를 설득시키든, 설득을 당하든 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진영 기자

美 교계 "송환법 우려… 홍콩 기독교인들과 연대"

홍콩 시내 그림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인스타그램** 미국 교계 지도자들인 에릭 메타삭스(Eric Metaxas)와 미국성공회 폴리 비치(Foley Beach) 박사가 "시위에 나선 홍콩인들을 위해 용기있게 연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and Democracy, IRD)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몇 달 간, 삶의 모든 걸음에서 당신을 지지해 온 우리는 홍콩의 자유와 정의의 수호를 위해 나선 당신들의 걸음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종준 · 소강석 목사 등 '호남 출신' 당선인 축하예배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에서 호남 출신으로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단상에 도열해 있다. ⓒ전국호남협의회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 호남인 당선자 축하 감사예배가 열리고 있다. ⓒ전국호남협의회

전국호남협의회가 김종준 목사(총회장)와 소강석 목사(부총회장) 등 호남 출신으로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을 축하하는 감사예배를 7일 롯데호텔에서 드렸다.

예배에는 김 목사와 소 목사를 비롯한 당선인들과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150여 명의 목사 및 장로 등이 참석했다.

1부 예배는 전국호남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상복 목사의 인도로, 회록서기 문홍선 목사의 성경봉독, 전국호남협의회 명예회장인 소강석 목사와 김상현 목사의 설교 및 축도로 진행됐다.

소강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총회의 시대적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힘을 모아 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화의 고장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현 정부도 호남에 기반을 둔 정부"라며 "그렇지만 현 정부의 기조가 사회주의를 은근하게 표방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대정신과 이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유럽의 예를 들며 "기독교 사회주의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가치를 뺀 네오막시즘의 사회주의로 온 땅을 지배해, 교회가 국가의 종교서비스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현 정부는 그런 네오막시즘에 기초한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소 목사는 "이럴 때 우리 호남 기독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야를 향해 충언을 하고 방향제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는 정파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정파적이면서 순수한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하며 그 뜻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총회의 호남인 당선자들을 향해 "우리는 총회 내부 살림만 하기 위해 당선된 것이 아니다. 지역색을 내세우기보다는 호남인으로서 역사적 사명과 책무를 가지고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연합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와 나라, 그리고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기독교적 사상과 문화의 흐름 속에서 중재적 역할, 소통의 통로가 되어 용기와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2부는 상임회장 정중헌 목사의 사회로 합심기도, 격려사, 축사 순서로 진행됐다.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총회장, 부총회장 등 당선인들을 보며 하나님이 총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증경총회장 정평수 목사는 "공의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당선인들을 선출하셨다. 정직하게 총회와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하는 분들이 당선되었는데 총회장, 부총회장을 중심으로 총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밖에 총회총무 최우식 목사, 호남협의회 회장 김용희 목사, 서북지역노회협의회 회장 배재철 목사 등이 축사했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당선인 대표로 인사하며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한 이번 총회를 통해 목회자들의 영성과 총신, 총회, 다음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당선된 호남출신 임원은 총회장 김종준 목사,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서기 정창수 목사, 회의록서기 박재신 목사, 회계 이영구 장로, 부회계 박석만 장로, GMS 부이사장 조승호 목사, 재판국장 김정식 목사, 교육부장 서현수 목사, 경목부장 하종성 목사, 순교기념부장 박요한 장로, 헌의부장 김상신 목사, 학지부장 안창현 목사, 군목부장 서홍종 목사다.

김진영 기자

'광화문 집회' 기독교인들은 왜 거리로 쏟아졌나?

한기총과 한교연이 참여해 진행된 '10 · 3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광화문 집회 모습 ⓒ김진영 기자

'자유민주주의' 균열 우려… 종교의 자유 지키려

3일 서울 광화문과 세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는 약 3년 전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촛불집회'를 방불케 할 만큼 수많은 인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이 같은 집회로 이어졌다.

특히 집회 군중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집회는 이날 전국 17개 광역시도 226개 기독교연합기관이 주축이 돼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된 '한국교회 기도의 날'이 유일했지만 나머지 집회들에도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찬양이 울려퍼졌으며, 예배와 기도회를 별도의 순서로 진행한 집회도 있었다. 집회 한 참석자는 "적어도 50~60%는 기독교인들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이 거리로 직접 나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이를 기초로 한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분단과 6.25전쟁 등을 겪으며 종교의 자유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사회·공산주의에 반대해 왔다.

특히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전력이 있는 조국 장관이 지난 청문회에서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히고,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자 그 같은 위기의식이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광화문 집회에서 이용규 목사(한기총 증경대표회장)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애국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히 지키자.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는 절대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권태진 목사(한교연 대표회장)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했다.

'한국교회 기도의 날' 주최 측 역시 "우리나라와 교회가 존망의 고비에 처했다. 망국의 소용돌이로 급속하게 말려들고 있는데도 위기를 위기로 알지 못하는 국민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수호를 적극 지지한다. 성경적 신앙에 배치되는 제도와 법률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이사장 : 조종곤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Faith Christ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3242 W. 8th Street #200., LA, CA 90005
Tel : (818)913-3115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가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는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년 월 일

등록상담전화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월 일 금 시간

학위수여식 년 월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L.A, CA 90057 | 213-272-6031

닮고 싶은 사람, 마가 요한-2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바울이 처음 로마에서 투옥됐을 때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갔고,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와 함께 소아시아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디모데후서 4:11) 이는 마가가 바울의 최측근으로 끝까지 옆에서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자리를 지켰다는 반증입니다. 이 모든 일은 마가가 바울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극복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자기 삼촌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십을 내주게 되어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었고, 성격적인 면에서 바울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가는 바울의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찾았던 마가는 바울의 순교 이후에는 베드로 사도의 제자가 되어 함께 바벨론까지 가서 복음 전도를 위해 동역했습니다.

초대 교부의 전설에 의하면 마가는 베드로를 수행비서처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베드로의 아람어 설교를 헬라어와 라틴어로 통역했다고 합니다. 통역은 고도의 기술입니다. 언어 실력도 있어야 하지만 언어와 함께 그 나라의 문화도 충분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통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중 문화권에 익숙했고 여러 언어를 습득했던 마가는 디아스포라로 살며 헬라어와 아람어를 습득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으며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 요한이야말로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수행하며 배웠던 최고의 실력자일 수 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마가는 복음을 위한 동역에 꼭 필요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베드로전서 5:13)

이처럼 바나바 아래서 생활하며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고 저돌적인 바울을 끝까지 희생적으로 섬기면서 깨졌던 관계도 회복하고, 베드로를 수행하며 복음 전파에 실질적인 유익을 끼친 실력자 마가 요한은 모든 복음서의 교과서가 된 마가복음을 썼으며 원자폭탄 같은 복음의 핵을 심는 일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 문도가 모여 기도하며 성령 강림이 있던 곳을 마가 어머니의 다락방이라 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마가가 마지막에 순교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는 마가 기념일 (4월 25일)이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며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초대 교부로, 로마의 압제 속에 화형 당해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심겨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이 이처럼 먹힐 유월절 어린양이 될 것을 알려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게 복음 전파의 지평을 연 마가와 같은 분이 몹시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당당하세요! 행복하세요!

안 성 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연이 참 좋습니다. 예전에는 인위적인 웅장하거나 멋진 구조물들을 좋아했는데, 그 보다는 자연이 더 좋습니다. 인간의 손에 꾸며진 화단의 꽃 보다, 길 가의 꽃이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모릅니다. 어느 아이든, 안 예쁜 아이들이 없지만, 특별히 선교지의 아이들은 '들 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번 아프리카 케냐, 말랑가 교회에 방문하였을 때, 몇몇 아이들이 나와서 저를 환영하며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해맑은 얼굴로 찬양을 부르며 맞아주는 저들의 환영이 그렇게 예쁘고 좋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돌아와, 한국 방송에 뉴스 가운데 책가방을 메고 힘겹게 등교하는 아이들과, 학원에서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대학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들의 모습은 마치 원하지 않는 전쟁터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보여졌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의 모습이 색깔과 향기를 잃어버린 꽃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신의 색과 향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갈 아이들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비교 의식'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간한 손화신 씨의 저서 '아이라는 근사한 태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는 살아 갈수록 비교대상이 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5살 때는 3명, 10살 때는 20명, 18살 때는 50명, 28살 때는 100명, 이제는 SNS 미디어까지 가세해 엄청난 비교의 대상 속에, 상상할 수 없는 비교의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정작 자신을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불행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처럼 당당하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뻔뻔하고, 믿는 구석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저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책을 읽으며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모 때문에 당당하고, 그 부모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가 비교하고 그 비교의 기준 속에 아이들이 비교하고 그래서 결국 불행합니다.

많은 신앙인들도 이 '비교의 함정'에 빠져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결국 자신을 불행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가치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들 꽃 같아도, 그 들 꽃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당당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깨어져야만 얻게 되는 것

송 재 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늘 경험하는 원칙과 같은 하나의 결론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야 신앙의 다음단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다. 마치 선물상자에 포장을 끄르려고 할 때 상자 안에 무엇이 있을까? 가만히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조각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무엇인가 큰 조각이 차인듯하여 기대에 부풀게 되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려고 시도 하다가 그것이 깨어져 부서짐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는 아쉬움과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듯 우리 신앙도 "부서짐 혹은 깨어짐"을 경험하는 순간 소중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혹자는 "기적은 항상 "깨어짐"(Breaking)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을 남긴 듯하다. 이와 같이 우리는 깨어져야만 자신을 뒤늦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신앙생활의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어찌 보면 "깨어짐과 부서짐."의 의미는 무조건적인 절망의 순간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값진 보물을 캔 것처럼 소중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22:19절에서 예수님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원래 "감사기도"의 헬라어 원어는 "유키리스테오(εὐχαριστέω)"이다. 특별히 "유키리스테오(εὐχαριστέω)" 에는 기쁨을 뜻하는 "카라(χαρα)"라는 단어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여기서 떡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진 "떼어진 후" 제자들에게 전달된다. "떼어졌다"는 의미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이 손상이 되어 일정부분 나눠진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떡을 떼어 보이시며 자신의 몸도 우리를 위해서 깨어지는 아픔과 헌신을 통해 드려질 것을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도 우리들을 위해 자신을 깨어짐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이로운 기쁨은 여기에 있다. 산산이 부서지는 가운데서도 날 끌어안고 포응해 주는 깊은 은혜였기에 우리는 더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다.

어쩌면 자신의 부서짐이 세상의 부서짐과 만날 때,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의 부서짐과 내어줌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맛보게 되는지 모른다. 이것이야 말로 풍성하고 행복한 만남이 아닐까? 그렇다. 우리는 허물어진 곳에서 부서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비로써 그리스도의 상한 심령에 가장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서짐에 자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고난의 연속 이였기에, 우리 또한 고난의 부서짐을 통해서만 교통의 풍성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치유와 내밀한 사귐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념하고 또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여기서 "행하라"는 헬라어 포이에오(ποιέω)이며 현재시제 명령형이다. 무엇보다 현재시제는 연속적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서지고 깨어짐의 삶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기억하고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명령에는 예수님의 부서짐이 있으셨고 그 희생은 우리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깨어짐의 40년 세월이 필요했다. 모세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하여 이전에 모세가 가졌던 모든 것이 깨어지는데 40년이 걸린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필연적으로 깨어짐과 변화, 그리고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깨어짐을 위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 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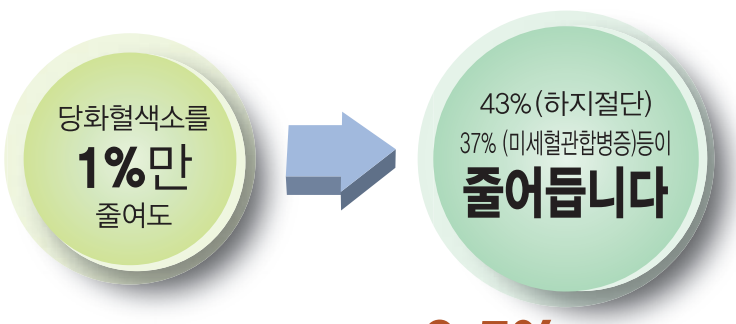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한국에 처음 '꽃들도(花も)' 소개한 선교사의 이야기

[인터뷰]이준석 선교사를 만나다

일본에서 만든 찬양이 한국인의 가장 사랑하는 찬양으로 오랜 기간 불리고 있다. '꽃들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花も(하나모)'다.

최근 서울 신도림에서 만난 이준석 선교사는 한국에 '꽃들도'를 처음 소개한 장본인이다. 무속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하나님을 만난 뒤, 제16회 CBS창작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아워드림찬양선교회(대표 전용대 목사) 음악 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첫 1집 솔로 앨범에 일본어로된 '花も(하나모)'를 수록했다. 이어 2013년, 일본인으로만 이루어진 'NCM2 콰이어'에 첫 한국인 멤버로 들어가기도 했다. 이 팀의 앨범에 처음 수록한 곡도 '花も(하나모)'였다. 아래는 이 선교사와의 일문일답.

-무속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요?

"네, 친할머니와 어머니가 무속인이셔서 고등학교까지는 무속인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집에서는 교회에 가는 걸 정말 반대하셨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 전화통화를 하면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 믿으라고 잘하는데, 가족 전도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하잖아요.

이 관계를 보면서 한국과 일본을 생각하기도 해요. 일본 성도님들을 보면 집 안에서 거의 혼자 믿는 분이 많거든요. 결혼식도 부모님 없이 드리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집 안에서 혼자 크리스천이면 '신앙생활 하기 힘들겠다'고 격려를 해주시곤 하는데, 일본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거의 당연히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1세대 찬양사역자인 전용대 목사님의 수제자라고 들었는데요.

"2002년 회사의 연습생으로 있을 때, 목사님을 처음 뵈었어요.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그 후 어느 날 국립암센터병원의 예배 때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처음 특송을 맡아 찬양사역을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사랑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안 계셨으면 사역을 못 했을 거 같아요."

-지금은 '꽃들도'로 알려진 '하나모(花も)'가 한국에서 여러 차례 발매됐는데, '하나모'는 어떤 곡인가요?

"2003년도에 삿포로에 있는 메빅교회에서 발표한 어린이 찬송가집에 실린 곡이예요. 제가 선교 훈련을 받던 2007년도 당시 그 찬양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특송으로도 부르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어 찬양 앨범을 만들 기회가 있으면 일본과 한국에 알리고 싶다는 기도를 했어요. 그 후 2012년에 MCN2 콰이어를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일본에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 있으면 같이 앨범을 만들자'고 해서 제가 '하나모'를 하고 싶다고 했고, 제 첫 앨범에 일본어 버전으로 곡을 발매했어요. 2013년에는 NCM2 콰이어 앨범에도 넣었죠. 그때 LA에 계신 한 크리스천분이 만들어주신 뮤직비디오 영상도 같이 올라갔어요. 일본의 여러교회에서 특송을 했었어요. 가끔은 한국교회에서도 하나모를 일본어로 불렀는데 한국성도님들이 일본어 가사의 의미를 모르시니까 일본어가사와 제가 번역한 한글번역 가사를 화면에 띄우고 찬양을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찬양을 드리다가 몇 년이 지나니 일본 교회 안에서 꽤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되어 있었어요."

-왜 그 찬양이 일본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 같나요?

"어린이 캠프와 주일학교 때 불리는 찬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사용하신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모(花も)'를 발표할 때 제 이름으로 발표한 찬양이 아니어서 더 알려진 거 같아요(웃음). 지금도 저희 NCM2콰이어가 부른 하나모를 당연히 일본사람이 부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난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연합해서 하나모를 발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모 찬양은 저희 콰이어가 발표하지 않았어도 결국은 일본교회에 알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모 찬양이 일본교회에 많이 알려지면서 지금처럼 많은 일본교회를 순회하면서 찬양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일본 선교는 어떻게 가게 되셨나요?

"처음부터 일본 선교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제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크리스천이셨어요. 대중음악을 하시던 분인데,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분께 많은 위로를 얻었고 격려도 많이 받았어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이준석 선교사. ⓒ김신의 기자

저는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노래하는 게 좋아서 찬양 사역을 하고 싶어 했죠. 기도하면서 열정만 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몇 년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회사의 연습생으로도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참 실망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일본 선교를 자주 얘기하던 형이 제게 1년 동안 도쿄 선교를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까지 따라간 거죠. 청년부 시절이 없던 제가 한 번에 1년 동안 장기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제대로 된 신앙훈련의 시간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일본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책도 많이 읽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큰 교회에 서서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일본에서 일본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누고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도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07~2008년쯤이었네요."

-일본을 싫어하셨다 해도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보기 전에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편견을 갖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일본에 갔지만, 일본 사람들, 일본의 크리스천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그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일본 크리스천분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지 알게 되었어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데도 '예배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 힘이 된다'고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었죠. 지금은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천은 일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에게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크리스천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뭘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늘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으로 일본 교회를 품고 계속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본 선교를 함에 있어 부딪히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는 순회를 다니고 있어서 한 교회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일본 분들이 이성적이지만 또 종교심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성을 뛰어넘어 무언가를 의지하려는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영물이라 하면서 섬기고, 모든 물건도 마음을 쓰면 신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토테미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종교가 아니라 문화라고 하면서 이러한 종교심을 일본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앞으로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내년 3월,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주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본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가타성서학원이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니가타성서학원에 한국 선교사님인 박창수 교수님이 계시고, 나카무라 사토시 교장님이 계세요. 일본에서 명망있고 존경받는 크리스천역사 학자로 그분들이 쓴 책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돼 있어요.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가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일본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일본 교단, 교회, 성도분들과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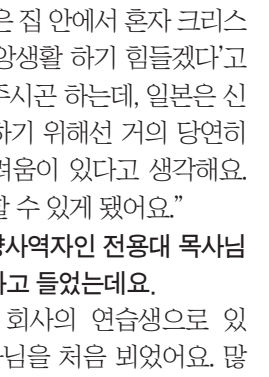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사역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선교사님 자녀들은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일본도 편견이 존재해요. 한일관계가 안 좋아서 후원도 많이 끊겼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봐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지금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생각해서라도 일본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신의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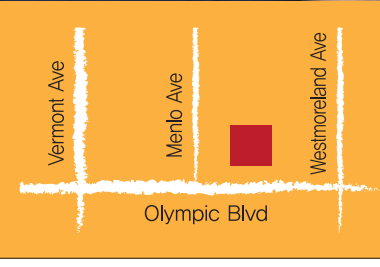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213)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 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 맞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11월

발보아 식물원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럭시 뷔페, 발보아 팍

11/9(토) 당일
$99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213.434.1170
Tel.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la@gmail.com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노력해야 할 이유? 그리스도인, 성공 아닌 '성장' 하는 사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완
웅진지식하우스 | 288쪽

열심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남들이
가리키는 것에
큰 의문과 반항을
품고 살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았다.

나는 항상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그들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려고 애써왔다.
잘 안 됐지만 말이다.
사실 가능하면
'인생 매뉴얼'에 맞춰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럼 지금 열심히 살지 않기로 다짐했다는 말인가?

이 책의 저자 하완은 40세의 나이에 잘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낸다. 붙잡으면 못 이기는 척 다시 남을 생각도 했지만, 사표는 이미 수리된 후였다. 이 한 번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모두 노력하는데,
'노력하지 않는 삶' 쓰다
노력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성장이다

괴테는 말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저자는 자신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춰야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시작한다. 모두가 열심히 사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다. '노력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의 '노력하지 않는 삶'에 대한 에세이다.

'노력 무용론'을 말하는 시대다. 많은 사람이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존재한다. 노래 연습을 열심히 한다고 모두 가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능 만점 받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것을 알기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성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 노력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 그러나 노력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다. 성장이다. 가수가 되지 못해도, 수능 만점을 받지 못해도 노력 자체는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성공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경험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성공을 꿈꾸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 자리씩 차지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래서 힘든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노력했다. 같이 기도하고 전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노력은 믿음의 성장을 가지고 왔다.

노력 싫은 이유? 자발적 아닌 강요 때문
노력이 경쟁으로 변할 때, 상처가 된다
자발적인 노력이 될 때 성장을 경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는 '노력 무용론'을 말하지 않는다. 경쟁이 없는 노력을 말한다. 노력을 두려워하는 것은, 노력이 자발적 결과가 아니라 강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을 향한 경쟁에 뛰어들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오늘도 원하지 않는 노력을 강요받는다.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떤 '경주'에 참가했었는데 지금은 그 경주를 기권한 기분이다. 경주에 참여하지 않으니 당연히 승리도 패배도 없다. 그런데 궁금한 건 그 경주가 무엇이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경주의 타이틀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돈 더 많이 버나' 대회?
'누가 먼저 내 집 장만하나' 대회?
'누가 먼저 성공하나' 대회?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며 열심이었던 모양이다."

우리의 노력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 그것은 경쟁이 된다. 경쟁은 승패를 만들어 내고 패자와 승자를 정확히 구분한다. 경쟁에 승자는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명이 웃을 때, 그 한 명을 뺀 나머지는 다 울 수밖에 없다.

노력이 경쟁으로 변할 때 노력은 상처가 된다. 그러나 경쟁이 아닌 자발적인 노력이 될 때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 성공은 승자만을 기억한다. 그러나 성장은 패자에게도 의미가 있다.

물론 성공이 조금 더 멋지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성장은 아름답다. 노력은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늘의 노력은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든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내가 된다. 성공이 마침표라면,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다. 저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쟁' 대신 '포기'하라고 말한다. 포기는 노력의 포기가 아니다. 결과의 포기다.

"우리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우리의 믿음, 즉 '노력'이 우리를 자주 배신하기 때문이다. 나는 죽어라 열심히 노력하는데 고작 이 정도이고, 누구는 아무런 노력을 안 하고도 많은 걸 가져가서다."

저자가 배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력의 결과다. 우리는 분명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노력하면 다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곳에 원하는 결과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상상은 이제 공포가 되었다. 그래서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하지만 포기할 것은 노력이 아니다. 노력의 결과다. 노력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다.

"괴로움을 줄이는 법은 안다. 분하지만 '인정'해 버리는 것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노력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도, 노력한 것에 비해 큰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괴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

'포기'한다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다.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잠언 16장 3절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16장 9절)".

결과는 하나님께, 노력하는 자신에 집중
수수께끼 묘미, 정답 아닌 '찾는 과정'
믿음은 성공 아닌, 성장을 향해 가는 것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자신에 집중해야 한다. 저자는 말한다. "인생은 수수께끼다. 정답이 없다."

수수께끼의 묘미는 정답을 푸는 데 있지 않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재미에 있다.

"수수께끼의 본질은 재미에 있다. 답을 찾는데 집중하느라 문제를 푸는 재미를 잃어버린 건 아닐까? 수수께끼를 꼭 맞춰야 하는 게 아니다. 틀려도 재미있는 게 수수께끼다."

인생의 재미는 성공에 있지 않다. 매일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믿음은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 성장을 향해 가는 것이다.

다윗은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았다.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고, 범죄한 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랬다. 그는 성장하는 삶을 살았기에, 노년이 아름다웠다. 그러나 너무 일찍 성공을 경험한 솔로몬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성공의 달콤함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 없는 성공은 달콤하지 않다. 오히려 독이 된다. 성공하지 못해도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이 있기 때문이다.

성공은 지금 당장 달콤하지만, 곧 쓴맛을 경험한다. 성장은 지금은 쓰지만, 곧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한다. 저자는 달콤함을 좇았던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며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겨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 얼마나 빨리, 편하게 싸게 원하는 결과물을 만드냐 하는 경쟁적 관점으로 살았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했다."

노력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다. 성공은 결과에 집중하게 한다. 그러나 성장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다.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존재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노력할 때 우리는 오늘만큼 더 성장한다. 성장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김현수 목사
행복한나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증,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신이 내린 항암식물!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환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환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 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유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Cl	나트륨 (Na)
칼륨 K	Cl	
칼슘 Ca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Cl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515g
$3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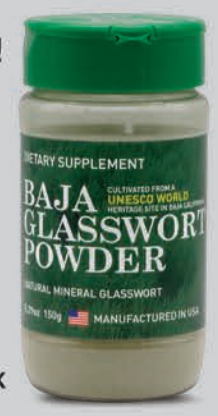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50g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50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악몽,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ROPHE CENTUM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헴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